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마미정 ** · 박초아 *** · 김동례 **** · 정경진 *****

요약

본 연구는 영유아기 가정의 육아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사업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부모교육 내용 중 인성 관련 부모교육 현황도 함께 분석하여 부모인성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3년과 2014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인성교육 현황 내부자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대상 설문지 등을 단순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에 따라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부모교육 횟수가 5배 이상, 대상 인원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부모 인성교육은 대집단과 소집단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주로 양육방법이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인성을 다루고 있었다. 셋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은 영유아기 부모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부모교육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첫째, 부모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시범적 운영 모델 개발, 둘째, 인성 주제를 포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진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셋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및 대상별·주제별 구성, 넷째,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의 다양화를 통한 발전적 부모교육 지향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육아지원, 부모인성교육

논문제출일 : 2015. 11. 14

최종심사일 : 2015. 12. 8

게재확정일 : 2015. 12. 15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코칭학회·한국에니어그램통섭학회·한국부모교육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주제 발표 원고를 토대로 작성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Corresponding Author : Cho-A Park, Ulsan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3F A-Dong 84 Daegongwon-ro, Nam-gu, Ulsan, 44660, Korea, E-mail: capark97@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의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은 가정 내 자녀양육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협조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21세기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는 사회 전반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어 그 기저에 자리 잡은 영유아 가정은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역할 정체성을 찾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정 내 양육이 부모 스스로의 역할에 한정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다양해졌고 정보가 많아졌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가정 내 양육에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함께 양육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제 국가와 지역사회는 미래 자원인 영유아의 안정적인 발달을 위해 부모와 함께 협력하는 공적인 책무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영유아 가정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5조(보육정보센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명시로부터 연유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 4328호). 이후 2005년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7조(보육정보센터)에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역할이 확장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7302호). 또한 2013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서 보육정보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동법 제7조에 ‘영유아에게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육아지원 역할을 확장하여 명시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1858호).

2013년 명칭 개정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10월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18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69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법

에 명시된 육아지원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크게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센터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특성이 있다.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앙정부의 보육 및 육아지원정책을 포괄적이고 대규모로 전달하는 반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민지향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군·구 단위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계기로 대다수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에 대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국내 육아지원기관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현황 및 인식, 참여 등의 조사를 한 연구(김은설 외, 2009)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육아지원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부모교육 허브(hub)로서의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정보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모교육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구역별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미정 외, 2014)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집약적이고 구조적으로 부모교육이 진행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여러 연구 중 육아지원의 연구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지원 역할과 방향(권용은 외, 2006), 지역중심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례를 중심으로(김은주 외, 2015), 영유아 부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안영혜, 201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이용현황 및 요구(여경하, 2014), 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박은희, 2014), 부모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이미화, 2015)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뿐 아니라 영유아가정을 위한 다양한 기능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영유아가정 지원의 대표적인 역할은 부모교육의 체계 구축과 보급에 있는 만큼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협의적 개념의 부모교육인 일방향적 전달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양방향 교육,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교육, 부모 및 부모와 자녀 간, 부모 및 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영유아가정의 안정적인 육아지원을 위해 포괄적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역할 속에 센터 고유의 정체성을 정확

하게 진단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현황과 센터 자체의 부모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함께 분석하여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교육의 기본 전제에서 부모의 인성 함양을 통해 영유아 자녀의 인성 발현이 이루어지므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해 온 부모교육 내용 중 ‘인성’을 주제로 한 부모교육 현황도 함께 분석하여 부모인성교육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책임감 있는 역할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향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게 될 부모교육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 사업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현황 및 센터의 부모교육 인식을 분석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육아종합지원센터 명칭 변경 전·후인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부모 인성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센터 직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문제 1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명칭 변경(2013. 12. 5.) 이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의 부모교육 현황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2014)’와 ‘2014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2015)’를 토대로 재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를 위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취합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 인성교육 현황자료(2015. 7. 8.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4개 센터를 대상으로 부모 인성교육 현황에 관한 회신을 요청하여 총 78개 센터가 회신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된 내용이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방향성 제안을 위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자료 중 26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문제3의 수행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필요성과 향후 방향에 대한 제안 등에 대해 각자 기술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방향성 제안을 위한 설문지 구성

내용	하위영역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센터의 부모교육 현황에 대한 인식	· 센터 사업 중 부모교육 사업 비중에 대한 인식 · 향후 부모교육 사업의 중대 계획 · 호응도 높은 부모교육 내용 · 부모교육의 진행 시간대 · 부모교육 진행 시 어려운 점 · 부모교육 계획 시 참고자료 · 부모 요구도의 반영률 · 센터 고유의 부모교육 사업 정체성 문제
향후 센터의 부모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인식	· 향후 센터의 부모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개인적 견해 · 부모교육 발전을 위한 중앙·시도·시군구 센터 간 협력에 대한 개인적 견해

3. 연구방법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2014)’와 ‘2014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2015)’에 제시된 부모교육 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주로 빈도와 백분율 등의 단순 통계를 사용하여 2013년과 2014년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부모 인성교육 현황자료를 토대로 주로 빈도와 백분율 등의 단순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3에 대해서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부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주로 빈도와 백분율 등의 단순통계를 사용하여 부모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서술된 의견들은 항목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현황 분석 결과

2013년 12월 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는 주요 기능이었던 ‘어린이집 지원’ 기능 이외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능 보강이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2014년과 그 이전인 2013년 간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부모교육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13년과 2014년에 진행한 부모교육 현황을 분석해보고, 명칭 변경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중 2013년과 2014년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부모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4, 2015).

1) 2011~2014년 부모교육 현황 분석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사용하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모교육 추진 현황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명칭으로 변경된 2014년의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과 이전 3년 간 부모교육 현황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2011~2014년 부모교육 추진 현황을 보면, 4년 간 총 8,749회에 걸쳐 269,016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1년에는 1,034회(38,460명), 2012년에는 838회(49,079명), 2013년에는 1,090회(56,386명), 2014년에는 5,787회(125,091명)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명칭 변경 전후인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1년 사이에 시군구 센터가 6개 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명칭 개정 1년 사이에 부모교육 횟수는 5배 이상, 대상 인원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부모교육 횟수의 증가율에 비해 대상 인원수의 증가율이 다소 낮은 것은 아마도 대집단 강의보다 소집단 워크숍 등의 부모교육 형태가 많아졌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표 2> 2011~2014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추진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횟수	8,749	1,034	838	1,090	5,787
인원	269,016	38,460	49,079	56,386	125,091

2) 2013~2014년 부모교육 내용

2013년과 2014년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내용은 크게 육아, 부모의 자아개발,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 이해, 교양 강좌,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3년 부모교육 내용 중 제일 많이 다룬 주제는 ‘육아(54.7%)’였으며, 다음으로는 기타(38.3%), 부

모의 자아계발(3.3%), 교양 강좌(2.3%),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 이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2014년 부모교육 내용 중에서도 ‘육아(61.4%)’, 기타(16.5%), 부모의 자아계발(12.3%), 교양 강좌(8.3%),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 이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2013년과 2014년 모두 ‘기타’를 제외한다면 부모교육 내용으로 ‘육아’와 ‘부모의 자아계발’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부모의 자아계발’과 ‘교양 강좌’를 주제로 한 부모교육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3> 2013~2014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내용

(단위: %)

구분	총계	육아	부모의 자아계발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 이해	교양 강좌	기타
2013년	100	54.7	3.3	1.4	2.3	38.3
2014년	100	61.4	12.3	1.5	8.3	16.5

3) 2013~2014년 부모교육 대상

2013년과 2014년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대상은 크게 부모,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예비부모, 양육자와 자녀, 기타 양육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3년 부모교육 대상 중 양육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6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어머니 30.9%, 아버지 3.5%, 부모 2.0%, 조부모 2.2%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양육자와 자녀 대상이 62.7%, 부모 25.7%, 어머니 4.0%, 아버지 3.4%, 예비부모 2.8%, 조부모 1.4% 등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볼 때, 양육자와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으며, 예비 부모 대상의 교육 역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에 따라 부모교육 대상의 폭과 다양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2013~2014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대상

(단위: %)

구분	총계	부모와 자녀	부모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예비부모
2013년	100	61.4	2.0	3.5	30.9	2.2	-
2014년	100	62.7	25.7	3.4	4.0	1.4	2.8

4) 2013~2014년 부모교육 형태

2013년과 2014년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형태는 단기·장기간의 정기적 강의, 1회성 집단 강의, 1회성 체험 위주의 워크숍, 기관 방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3년 부모교육 형태를 보면, 단기·장기간의 정기적 강의가 44.6%, 1회성 집단 강의 20.0%, 1회성 체험 위주의 워크숍 18.7%, 기관 방문 16.7%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에도 단기·장기간의 정기적 강의가 55.1%로 여전히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방문 16.0%, 1회성 체험 위주의 워크숍 14.8%, 1회성 집단 강의 1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2013년과 2014년 모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부모교육 형태는 집단 강의와 워크숍,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1회성 집단 강의보다 단기·장기간의 정기적 강의 형태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형태가 동일 부모교육 대상자에 대해 1회성 강의가 아닌 다회기 시리즈 교육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표 5> 2013~2014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형태

(단위: %)

구분	총계	단기·장기간의 정기적 강의	1회성 집단 강의	1회성 체험 위주의 워크숍	기관 방문
2013년	100	44.6	20.0	18.7	16.7
2014년	100	55.1	14.1	14.8	16.0

5) 2013~2014년 부모교육 강사

2013년과 2014년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강사는 크게 외부 아동 관련 전문가, 외부 특정 분야 전문가, 센터 내부 인력, 의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부 아동 관련 전문가에는 보육·육아·아동 관련 교수와 상담·치료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외부 특정 분야 전문가에는 예체능 전문강사와 기타 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013년 부모교육 강사로는 총 1,428명이 활동하였으며, 이 중 외부 아동 관련 전문가가 689명(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외부 특정 분야 전문가 583명(40.8%), 센터 내부 인력 111명(7.8%), 의사 45명(3.2%) 등이었다. 2014년에 활동한 부모교육 강사는 총 1,914명이며, 이 중 외부 특정 분야 전문가가 720명(3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외부 아동 관련 전문가가 667명(34.9%), 센터 내부인력 259명(13.5%), 기타 176명(9.2%), 의사(한 의사) 55명(2.9%), 센터 이용 부모 37명(1.9%)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2013년과 2014년 모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강사는 90% 이상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4년의 경우에는 센터장 및 직원 등 센터 내부 인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센터 이용 부모를 강사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부모교육 강사진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이나 직원 이외에 센터 내부에 전문 강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6> 2013~2014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강사

(단위: 명, %)

구분	총계	외부 아동 관련 전문가		외부 특정 분야 전문가		센터 내부 인력	의사 (한의사)	센터 이용 부모	기타
		보육·육아·아동 관련 교수	상담·치료 관련 전문가 및 교수	예체능 전문 강사	기타 분야의 전문가				
2013년	1,428 (100)	689 (48.2)		583 (40.8)		111 (7.8)	45 (3.2)	-	-
2014년	1,914 (100)	419 (21.9)	248 (13.0)	216 (11.3)	504 (26.3)	259 (13.5)	55 (2.9)	37 (1.9)	176 (9.2)

6) 부모 인성교육 자료 보급

2014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된 3~5세 누리과정을 가정 연계를 통해 교육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자료인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 인성교육」 소책자를 개발하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포하였다. 이 자료는 「누리과정 가정연계 어린이집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건복지부, 2013) 자료를 기초로 부모교육의 구성 내용 중 부모 역량강화 부분과 인성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을 수합, 재정리하여 부모교육 자료로 재구성된 것이다. 효율적인 부모 인성교육을 위해 PPT 자료까지 개발하여 전국 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7>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 인성교육」 소책자의 구성

소책자 목차
부모됨 : 자신 있는 부모 되기
부모 역량 강화 : 아이와 소통하기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키우기 : 배려, 존중
더불어 사는 아이로 키우기 : 협력, 나눔
기분이 바른 아이로 키우기 : 질서, 효

2.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인성교육 현황 분석 결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부모 대상의 인성 주제 관련 교육 현황을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조사한 바 있다. 총 84개 센터 중 78개 센터에서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부모 인성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2015. 7. 8.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분석 내용에 따라 부모 인성교육 건수가 다른 것은 중복 집계에 따른 것임을 밝혀둔다.

1) 부모 인성교육 대상

부모 인성교육의 대상은 주로 ‘부모’였으며 총 107건 중 88건(82.2%)이었으며, 조부모 대상 14건(13.1%), 예비부모 대상 5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직 비율이 적기는 하나, 부모 이외에 조부모, 예비부모 등 양육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모교육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부모 인성교육 대상

(단위: 건수, %)

구분	총계	부모 대상	조부모 대상	예비부모 대상
건수	107	88	14	5
비율	100	82.2	13.1	4.7

2) 부모 인성교육 형태

부모 인성교육의 형태는 주로 ‘대집단’ 형태로 총 95건 중 55건(57.9%)였으며, ‘소집단’ 형태도 37건(38.9%)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집단 뿐만 아니라 소집단 형태의 부모 인성교육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집단 형태의 인성교육을 통해 실천적 접근(예: 양육 및 소통방법, 놀이방법, 사례 공유 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9> 부모 인성교육 형태

(단위: 건수, %)

구분	총계	대집단	소집단	기타
건수	95	55	37	3
비율	100	57.9	38.9	3.2

3) 부모 인성교육 내용

부모 인성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양육방법(46.3%), 발달·양육태도(29.5%)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인성 덕목(예: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등)이나 포괄적인

인성교육 자체를 어느 정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고는 있으나, 주로 양육방법이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인성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0> 부모 인성교육 내용

(단위: 건수, %)

구분	총계	포괄적인 인성교육	발달·양육태도	양육방법	인성 덕목
건수	95	12	28	44	11
비율	100	12.6	29.5	46.3	11.6

<표 11> 2015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획한 부모 인성교육 예시

포괄적인 인성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형태
부모인성교육	부모	· 부모인성교육 책자 활용, 인성교육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나누기	소집단
행복한 아이를 위한 인성 키우기	부모	· 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 · 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 실제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제	소집단
부모 인성 소집단교육 1~3차	부모	· 1차: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다 · 2차: 어린이집 보육과정 바로 알기 · 3차: 스스로 교육의 놀라운 힘	소집단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부모	·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대집단
아이의 인성, 부모로부터 온다	부모 및 조부모	·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교육	대집단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 및 조부모	· 창의적인 아이, 인성이 바른 아이, 마음이 따뜻한 아이, 기본이 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	대집단
부모 인성교육	부모	· 영유아 인성교육 외	대집단
다문화부모 인성교육	다문화 부모	· 다문화 영유아 키우기 외	소집단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인성교육	부모	· 1회: 자신 있는 부모 되기, 아이와 소통하기 · 2회: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키우기(배려, 존중) · 3회: 더불어 사는 아이로 키우기(협력, 나눔) · 4회: 기본이 바른 아이로 키우기(질서, 효) * 강사 교육·모둠활동을 통한 경험발표 및 의견나누기	소집단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인성교육	부모	· 인성의 덕목	대집단

인성 덕목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 내용	교육형태
부모인성교육	예비부모 및 부모	· 자녀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 덕목 별 교육	소집단
버추 프로젝트	부모	· 미덕의 보석, 버추 카드를 통해 감사, 배려, 겸손, 사랑, 화합 등 미덕을 연마	소집단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키우기	예비부 모	· 가족의 배려, 배려의 실천, 마음	소집단
화내기 않고 말해요	부모	· 남을 배려하고 올바른 감정 표현방법	워크숍
가정, 영유아 권리 존중의 시작	부모	· 권리 존중, 대화의 시작 ·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부모	소집단
작은 권리로 시작하는 큰 행복	부모	· 영유아 권리 존중의 실제	소집단
가정 내 영유아 권리 존중 교육	부모	· 영유아 권리 이해하기 · 가정 내 영유아 권리 존중의 실천	대집단
영유아 발달과 사교육	부모	· 영유아 놀 권리와 행복할 권리 · 영유아시기의 놀이 중요성 · 영유아의 자발적 흥미와 의욕을 높여주는 자 기주도 학습	소집단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다	부모	· 영유아기 놀이의 중요성 및 효과 · 과도한 특별활동 지양, 놀 권리 추구	소집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권리존중교육	부모	· 아동과 권리 이해하기, 아동학대 예방하기, 아동권리 실현하기 등 워크북을 통한 교육	워크숍
인성과 예절을 갖춘 아이로 키우기	부모	· 인성과 예절의 정의 및 예절교육의 필요성, 가정에서의 인성과 예절에 대한 부모의 역할	대집단

3.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부모교육 인식 조사 결과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방향성 제안을 위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자료 총 26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한 자료는 중앙을 제외한 전국 87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점이 있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반의 의견이라 추측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1)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100점 만점 기준에 최저 70점에서 최고 100점이라고 응답하였다. 100점 만점이라고 응답한 센터는 총 26개 센터 중 20개 센터였으며, 구체적인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2>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개소수, %)

구분	총계	70점 미만	70~80점 미만	80~90점 미만	90점 이상
개소수	26	0	1	1	24
비율	100	0	3.8	3.8	92.4

2) 센터의 부모교육 현황에 대한 인식

(1) 전체 사업 중 부모교육 사업 비중에 대한 인식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 사업이 전체 센터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26개 센터 중 ‘30% 미만’이라고 응답한 센터가 10개소(38.5%), ‘30~50% 미만’도 10개소(38.5%)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 사업의 비중은 전체 센터 사업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비중 중 어린이집 지원사업 비중이 가정양육 지원사업 비중보다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13> 전체 사업 중 부모교육 사업의 비중

(단위: 개소, %)

구분	총계	부모교육 사업 비중 30% 미만	부모교육 사업 비중 30~50% 미만	부모교육 사업 비중 50~70% 미만	부모교육 사업 비중 70~90% 미만	부모교육 사업 비중 90% 이상
개소	26	10	10	3	2	1
비율	100	38.5	38.5	11.5	7.7	3.8

(2) 향후 부모교육 사업의 증대 계획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중 현재보다 부모교육 사업을 늘릴 계획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6개 센터 중 ‘현재보다 많이 늘릴 계획이다’ 10개소(38.5%), ‘현재보다 늘릴 계획이다’ 14개소(53.8%) 등으로 응답했다. ‘현재와 같다’라는 응답은 2개소(7.7%)였다. 현재보다 부모교육 사업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에 대한 고유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 가정양육 지원사업은 필수라 생각한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다양한 부모교육 요구와 필요성을 염두에 둘 때 부모교육 사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등을 들었다. 부모교육 사업의 비중이 ‘현재와 같다’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맞벌이 등의 이유로 부모 참여율이 높지 않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센터는 현재보다 가정양육 지원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표 14> 향후 부모교육 사업의 증대 계획

(단위: 개소, %)

구분	총계	현재보다 많이 늘릴 계획이다	현재보다 늘릴 계획이다	현재와 같다	현재보다 줄일 계획이다	현재보다 많이 줄일 계획이다
개소	26	10	14	2	0	0
비율	100	38.5	53.8	7.7	0	0

(3) 호응도 높은 부모교육 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해 온 부모교육 내용 중 호응도가 높았던 것은 이론교육이 아닌 실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다. 예를 들어, 문제행동지도, 그림책 관련 교육, 아빠와 함께 하는 놀이방법 등이 호응도가 높았다고 응답했다.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낮았던 부모교육 내용은 이론 중심의 교육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실제적인 육아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이 부모들에게 호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4) 부모교육의 진행 시간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의 진행 시간대는 주로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토요일 오전 등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업주부인 경우 주로 평일 오전과 오후를 선호하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 토요일 오전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5> 부모교육의 진행 시간대

(단위: 순위)

구분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야간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순위	1순위	2순위	4순위	3순위	5순위

* 중복응답

(5) 부모교육 진행 시 어려운 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참여율 저조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 강사의 부족, 사업비 부족, 진행 장소의 부족,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각각 다른 점 등을 주로 언급했다. 이외에도 유사한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기관이 많다는 점,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교육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볼 인력을 요구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와 함께 ‘찾아가는 부모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전문강사 인력풀을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부모교육 계획 시 참고자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계획할 때 주로 무엇을 참고하는지 알아본 결과, 주로 부모교육 후 설문지를 통해 수요조사 및 요구도 파악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타 센터에서 진행했던 부모교육 내용이나 강사풀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모교육 내용과 우수한 전문강사진 풀을 데이터화하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7) 부모 요구도의 반영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계획할 때 부모 요구도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70~90% 미만 반영이 42.3%, 50~70% 미만 반영이 30.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모 요구도 파악 후 대부분 이를 반영하여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부모 요구도의 반영률

(단위: 개소, %)

구분	총계	30% 미만 반영	30~50% 미만 반영	50~70% 미만 반영	70~90% 미만 반영	90% 이상 반영
개소	26	0	5	8	11	2
비율	100	0	19.2	30.8	42.3	7.7

(8) 센터 고유의 부모교육 사업 정체성 문제

외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 사업을 평가할 때 ‘센터 고유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평가를 하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정체성 없음에 매우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4.6%, ‘정체성 없음에 동의한다’도 34.6%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을 토대로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 선정 등 나름대로의 정체성의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들었다. 반면 센터 고유의 정체성이 비교적 없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중복되거나 부모교육 진행에 따른 예산 부족이나 강사 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부모교육을 저예산으로 진행하다보니 강사의 전문성이나 체계성 등이 다소 떨어져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었다.

<표 17> 센터 고유의 부모교육 사업 정체성 문제

(단위: 개소, %)

구분	총계	정체성 없음에 매우 동의한다	정체성 없음에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정체성 없음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체성 없음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개소	26	0	9	8	7	2
비율	100	0	34.6	30.8	26.9	7.7

3) 향후 센터의 부모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인식

(1) 향후 센터의 부모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개인적 견해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모교육이나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의견,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대상별·연령별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 출산에서 양육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정부 차원에서 센터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센터 비전을 바탕으로 부모의 요구도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부모교육 강사진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부모교육을 계획해야 한다는 의견,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2) 부모교육 발전을 위한 중앙·시도·시군구 센터 간 협력에 대한 개인적 견해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발전을 위한 중앙 및 시도·시군구 센터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 강사진 양성, 부모교육 관련 정보폴 구성 등 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러 센터에서 언급하였다.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인성과 부모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및 부모 인성교육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나아가야 할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뿐 아니라 부모들 역시 동의하고 있음은 본 연구 및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육내용으로 부모교육을 계획해도 실제 부모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부모교육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기관과 차별화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2월 5일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육아지원 기능이 강화되었음은 앞의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 구조, 그리고 미설치된 시·군·구 단위 센터 등의 요인에 의해 부모의 접근성이나 홍보 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1) 부모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시범적 운영 모델 개발

영유아기 인성의 기본 핵심은 부모라는 전제 하에 이제 부모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보다 참여하지 않는 부모에게 정작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곤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 중에는 일단

기관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일임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제 부모교육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릴 제도적 장치를 구상해야 할 때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부모교육의 제도화가 자칫 ‘위에서 아래로의 전달’ 또는 ‘필수나 강제적 요소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플랜을 구상해야 한다.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최적의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라면 언제든지 찾아와 정보를 얻고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부모의 요구도 조사를 토대로 하되,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부모교육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하므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홍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나, 우선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을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인성 주제를 포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전문 강사진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앞의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 인성교육이 포괄적인 인성교육이나 인성 덕목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모의 양육방법이나 양육태도 등을 통해서도 강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인성은 부모의 인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저에 깔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을 개발할 때는 연령별·대상별 부모의 요구도 조사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의 연구와 수요조사를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주체는 육아정책연구소 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전문 강사진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혹은 지금까지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부모교육을 담당했던 강사진 명단을 확보하여 주제별, 대상별 분류를 토대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유할 수 있다면 부모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별로 부모교육 강사진을 찾고 강의 평가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시도·시군구 센

터 간 협력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및 대상별·주제별 구성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부모들이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취지하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등의 이름을 공모한 바 있다. 이 공모에서 최종 결정된 브랜드는 ‘키움뜰 부모교육’과 ‘키움뜰 놀이’이다. 아직까지는 이 두 개의 브랜드로 부모교육 사업을 홍보하고 실시하는 센터는 일부에 불과하나, 차후 이러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부모들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부모교육이 유용한 내용을 선정하고는 있으나 단편적, 일시적 교육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상별·주제별로 부모교육을 시리즈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표 18>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예시

분류	과정	프로그램 명
키움뜰 부모교육	예비부모 과정	행복한 부모되기Ⅰ - 태교 이야기
		행복한 부모되기Ⅱ - 성장발달 이야기
	영아 부모 과정	현명한 부모되기Ⅰ - 애착형성 편
		현명한 부모되기Ⅱ - 상호작용 편
		현명한 부모되기Ⅲ - 건강·안전 편
		현명한 부모되기Ⅳ - 기본생활 편
	유아 부모 과정	베테랑 부모되기Ⅰ - 대화코칭
		베테랑 부모되기Ⅱ - 행동코칭
		베테랑 부모되기Ⅲ - 미디어 활용코칭
		베테랑 부모되기Ⅳ - 초등학습코칭
키움뜰 놀이	부모-영아 놀이	기본생활·신체운동 쑥쑥!
		의사소통·사회관계 쑥쑥!
		예술경험·자연탐구 쑥쑥!
	부모-유아 놀이	기본생활·신체운동 쑥쑥!
		의사소통·사회관계 쑥쑥!
		예술경험·자연탐구 쑥쑥!

4)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의 다양화를 통한 발전적 부모교육 지향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많다. 강의 위주의 대집단 강좌에서 벗어나 이제 부모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라는 용어도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에서 벗어나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어려움과 하소연을 풀어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소모임)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부모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어린이집과 가정으로 찾아가는 형태여도 좋겠다. 또한 ‘양육’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부모’인 ‘나’를 이해하고, 이로써 양육방법과 태도에까지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인성’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할 때 가장 이해가 쉬울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권용은·김미화·박민정·우현경·이세나(2006).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지원 역할과 방향. *육아지원연구*, 1(1), 43-66.

김미정·이나련(2014).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수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김은설·최진·조혜주·김경미(2009).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 참여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주·연희정·이영경(2015). 지역중심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209-230.

박은희(2014). 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대구: 대구정북연구원.

안영혜·안영혜·서현아·허수윤·한희정(2015). 영유아 부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 *아동교육*, 24(1), 229-246.

여경하(210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이용현황 및 요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화(2015). 부모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육아정책포럼*, 2015 가을 제45호, 19-28. 육아정책연구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4). 201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4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인성교육 현황 분석 내부자료.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at Local Support Centers for Childcare

Mi-Jong Ma* · Cho-A Park** · Dong-Rye Kim*** · Kyung-Jin Jeo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parent education at support centers for childcare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operated by support centers for childcare. Furtherm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character education for parents and to propose key roles of parent character educat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business result reports of years 2013 and 2014 published by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internal data on parent character education, an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the employees of the support cen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ith the renaming to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the frequency of parent education increased by five times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creased by over twice in 2014 compared to those in 2013. Second, parent character education was conducted in various forms and contents, focusing on rearing method and rearing attitude. Third, the employees of the support centers emphasized the identity of the center as a parent education institution for parent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at the same time, were concerned about low participation in parent edu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first, developing demonstrative operation model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ent education; second, establishing systems for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contents including character themes and raising professional lecturers; third, ‘brand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designing the programs according to subject and theme; and fourth, aiming at constructive parent education through diversifying the methods and contents of parent education.

Key Words :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Parent Education, Childcare Support, Parent Character Education

* Director,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Director, Ulsan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Director, Jeonnam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Director, Chungbuk Support Center for Childcare.